

소금물 가리기로 30% 소독효과

농촌진흥청, 벼 키다리병 예방 위한 볍씨 소독 방법 제시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볍씨소독 방법을 소개했다.

벼 키다리병은 해마다 발생해 피해를 주는 병으로 이삭 켈 때 병원균에 감염된 종자가 1차적인 전염원이 되는 종자전염병으로 종자소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다.

볍씨소독을 할 때 먼저 소금물가리기를 통해 죽은 벼를 골라내면 소독효과를 20%~30% 높일 수 있다.

종자의 까락(까끄라기)을 없앤 뒤 메비는 물 20L당 소금 4.2kg, 할비는 물 20L당 소금 1.3kg을 녹인 다음 볍씨를 넣는다. 물에 뜬 볍씨는 골라내고 가리אות은 볍씨를 깨끗한 물에 2회~3회 씻은 뒤 말린다.

소금물가리기를 마친 볍씨는 적용 약제별로 희석배수에 맞게 희석한 다음 약액 20L당 볍씨 10kg을 30℃의 온도로 맞춰 48시간 담가두면 된다.

특히 병 발생이 심했던 지역 주변에서 생산한 벼를 종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30℃ 물에 침투이행성 약제를 섞고 종자를 넣어 48시간 침지하고, 씻기 시작할 때 다른 약제 1종으로 바꿔 24시간 침지하거나 습분의 처리 뒤 바로 파종하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수발아가 발생한 남부 일부지역에서 채종한 종자를 사용할 경우, 온탕침지 소독할 때 볍씨의 발아불량이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발아가 발생한 볍씨는 미질이나 종자활력, 발아율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용이나 종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난해 수발아의 집중 발생으로 우량종자 확보가 어려워 수발아 피해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종자발아력을 검사해 발아율 85% 이상인 종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수발아 피해 볍씨를 종자로 사용할 때에는 온탕소독을 자제하고, 소금물가리기를 실시한 뒤 등록된 약제의 사용방법을 준수해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이 좋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전남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벼 키다리병 방제에 대한 미생물 활용법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논도양에서 분리

해 벼의 주요 병에 강력한 길항작용이 있고 뿌리가 나는 것을 촉진하는 유용미생물을 선발해 특허 등록하고 전남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벼 키다리병에 대한 방제 활용법으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벼 키다리병의 친환경적인 방제법은 볍씨를 파종하기 전에 미생물 배양액에 단 한 번의 침지로 벼 키다리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활용중인 온탕소독법과 병행 처리할 때 최대 92%의 방제효과를 보였다.

이 방제법은 친환경 벼 재배에 적용할 때 기존의 소독법과 유사한 처리로 보다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일손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방제법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벼의 수확으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페이퍼, 녹색기업 재지정 현판식 개최

세만금환경청은 (주)전주페이퍼를 녹색기업으로 재지정하고 28일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전주제1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전주페이퍼는 1995년 전북지역 최초, 제지업계 최초로 녹색기업에 지정된 이후, 전 부문에서 환경투자와 더불어 공정 개선을 성실히 실행했으며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전 사원의 환경의식을 향상시켜 각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1998년부터 연속해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주)전주페이퍼는 폐지를 재활용해 신문용지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연간 약 백만톤의 폐지를 재활용하는 폐지 재활용 공장이 있다.

폐지 재활용으로 연간 약 1,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보전하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숲을 보호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화학연료를 바이오매스 연료로 대체해 스팀과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도입, 친환경 폐수처리 발전설비 설치, 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 부문에도 많은 투자를 시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에너지 부문 투자와 더불어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상의-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약정 체결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성공 수당 지급

전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전주지청과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약정을 체결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이고,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9세 이하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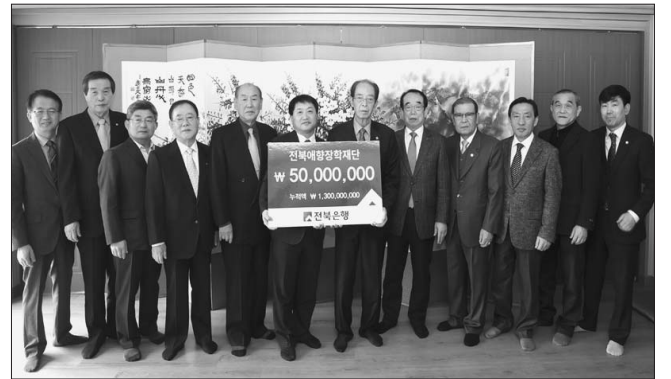
전주상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가 진행되고, 2단계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마지막 3단계는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에게는 단계별로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그리고 취업성공수당 등이 지급된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와 장년인턴취업지원제 등 일자리지원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희망자는 전주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063-288-3223)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전북애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전달

전북은행은 28일 전북애향장학재단을 방문해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도내출신 고등학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이면서 행정상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전북애향장학재단에 1992년부터 올해까지 26년째 매년 5,000만원씩 총 13억원을 지원했으며,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수인재육성에 앞장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북은행 김병용 부행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큰 꿈을 꾸고 있는 전북의 우수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지역유일 향토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신용보증기금,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3,150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수출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과 창업기업에 각각 1,900억원과 3,7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총 1조 2,9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이 같은 지원 계획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출기업 부문에서 400억원, 창업기업 부문에서 600억원, 보증총량 공급부문에서 700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신보가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캠코 전북본부,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성료

캠코 전북본부는 28일 지역본부 강담에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 직원이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자체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도 측정, 청탁금지법 및 관련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고취했으며 '1인 1청렴 좌

우명 갖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자발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캠코 전북본부는 지난해부터 본부 내 청렴아침방송 '청렴의 소리'를 통해 직원이 직접 '일 청렴메신저'로 참여해 청렴 관련 사례와 일화를 소개하는 등 자연스러운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인재용 기자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TEL: 063-653-5002
<렌탈전문> H.P: 010-6633-4070